고전 명시는 어떻게 그림속에 들어 갔을가

시를 담은 그림 그림이 된 시

윤철규 엮음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 畵中有詩).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옛 그림을 보면 흔히 그 안에 글이 적혀 있다. 사람에 따라 유심히 보는 이도 무심히 지나치는 이도 있다. 일반적으로 글에는 언제,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정보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 당·송 시대의 글뿐만 아니라, 시대를 풍자하는 문장도 등장한다.

동서양 그림에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글의 유무다. 물론 서양화에도 글이 없지 않지만 작가의 서명이 대부분이다. 동양화의 낙관이 언제, 누가 그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문장이나 시가 그림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이를 '화제(畵題)'라고 일컫는다.

동양화에서 그림과 글(시)이 함께하는 작품을 '시의도(詩意圖)'라 한다.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시의 뜻이 담긴 그림"이다. 중국 남송시대에 시작된 형식으로,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이후 전해졌다. 대체로 시의도는 그림을 그린 뒤 글을 첨가했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다. 시의도를 그린 작가는 머릿속에 글을 떠올린 뒤 그림을 그렸다. 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이 바로 그림인 것이다.

미술전문기자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미술정보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는 윤철규 씨가 '시를 담은 그림 그림이 된 시'를 펴냈다. 옛 그림 속의 명시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조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시의도의 출생지는 중국이다. 그림에 처음 시를 적은 이는 북송시대 황제 휘종이었고, 시의도의 원형이라 할 만한 그림은 남송 궁중에서 마원이 처음 그렸다고 한다. 문인화가 정착한 원나라 때는 글과 시가 수시로 그림에 삽입될 만큼 일반화됐다.

조선에서는 명나라 말기인 18세기에 시의도가 유행했다. 조선 초기 시의도는 실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중기에도 자료가 빈약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때부터 낙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림에 시구가 들어간 경우가 보이기 시작했다. 김홍도, 신윤복, 심사정, 이방운 등 당대 내로라 할 문인 사대부들이 시의도를 남긴 주인공들이었다.

시의도는 양반 사대부들의 지성과 허위의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였다. 물론 이들의 은밀한 취미까지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들이 즐겨 읊은 시는 소중한 문학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마로니에북스·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현대문명 소리없이 위협하는 붉은 재앙"

녹 RUST

조나단 월드먼 지음

수수께끼를 하나 낸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리를 무너뜨린다.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충돌하게 만든다. 물론 이것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보겠다. 미국에서 이것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GDP의 3%인 4370억 달러다(스웨덴의 GDP보다 많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녹(RUST)이다. 녹은 "인류의 문명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붉은 재앙"이다. 1990년에 미국은 도로 위에 소금을 뿌리는 데 5억 달러를 들였다고 한다. 부식 전문 공학자 로버트 버보이언이 교통연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교량의 철골과 반응해 염소이온을 곳곳에 퍼뜨려놓았다. 지금 미국의 다리는 소금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눈 오는 날 운전자가 타이어 체인을 사용하도록 하면 소금 살포량을 줄일 수 있다."

한때 수많은 제철 노동자로 붐볐던 펜실베이니아 베들레헴 제철소가 이제는 '녹'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버려져 있다. 〈반니 제공〉

소금(NaCl)은 염소(Cl)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자동차 부식의 주 원인이 된다. 차체 하부에 묻은 염화칼슘은 몇 개월 지나면 서서히 붉은색 녹을 발생시킨다. 녹은 보이지 않게 우리 일상에 침투해 붉은 재앙을 낳는다.

'인류에게 가장 막강하고 오래된 적' 가운데 하나인 녹을 다각도로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미국의 주요 저널의 기고가로 활동하는 조나단 월드먼이 펴낸 '녹 RUST'는 도처에 널린 녹의 위험 요인을 낱낱이 파헤친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녹'이나 '부식'이라는 단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들도 여간해서는 '녹'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매년 초 대통령의 국정보고 자리인 연두교서에서 '하부조직'이나 '유지 보수'를 언급한 대통령은 있지만 '부식'이나 '녹' 단어를 꺼낸 대통령은 없다고 한다.

인류사의 대표 문명 두 가지는 신석기 농업혁명과 18세기 산업혁명을 들 수 있다. 전자로 인해 인류는 집단 정착생활을 시작했고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다. 후자는 과학과 기술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대 문명은 금속을 대량으로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 한마디로 오늘의 첨단 과학 기술은 금속이 가져다준 과실이다. 21세기의 우리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진 가위, 숟가락, 에스컬레이터 등 다양한 덕택으로 편리한 생활을 누린다.

그러나 대다수 금속은 잠시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녹의 공격에 노출된다. 저자는 금속은 단단함의 상징이지만 인간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본다. "빨리 늙고, 본질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녹은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존재를 알 수 없고, 심지어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다. 건강과 안전, 보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를 위협한다. 일례로 미국의 가장 큰 송유관이 녹에 침식 당했을 때 OPEC의 원유 생산량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던 범인도 녹이다.

그뿐 아니라 녹은 컨테이너선의 나사를 망가뜨리고 맨홀 폭발의 원인이 된다. 세탁기를 폭파하고 스프링클러 노즐을 막아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이처럼 녹으로 인한 피해는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시시각각 현대 문명을 위협하는 녹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붕괴 가능성도 높아진다. 녹에 무관심하면서 행해지는 방만한 운영은 필연적으로 '붉은 재앙'을 가져온다. 부식방지 관리와 비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녹과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해야 할 때다. 물론 환경과 문명에 이로운 쪽으로 녹을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반니·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아 우주비행사와 고아 코미디언의 사랑과 농담

나는 농담이다

김중혁 엮음

한 남자가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다. 오랜 시간 훈련 받은 우주비행사이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연인이다. 그의 이름은 이일영이다. 그는 오랫동안 우주로 나가는 꿈을 꾼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모체 우주선과 분리돼 우주를 떠돌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다. 광막한 우주에서 그는 관제센터를 향해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 메시지는 구조요청이기도, 철학적 단상이기도, 가벼운 농담이기도 한다. 더러는 사랑하는 이를 향하는 편지가 된다.

작가 김중혁이 네 번째 장편소설 '나는 농담이다'를 펴냈다. 김유정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할 만큼 만만찮은 필력을 소유한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무한한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소설의 배경은 지구와 우주를 넘나들고, 소설의 인물은 삶과 죽음을 벗어난다. 이야기는 미아가 된 우주비행사와 고아가 된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이야기로 사랑과 농담이 도킹(docking)하는 우주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소설 속 인물이 들려주는 말은 진담 같은 농담, 농담 같은 진담을 오간다.

"저는 농담 속에 살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형체는 없는데 농담 속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농담에서 또 살아나고, 평생 농담 속에서 사는 겁니다." 〈민음사·1만3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라도가 탯자리요 삶터인 시골 어르신들 이야기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

황풍년 지음

전라도, 하면 떠오르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촌스러움'이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의 촌스러움이 아니다. 흔히 꾸밀 줄 모르는 있는 그대로의 투박한 모습을 말한다. 전라도의 촌스러움을 '수수함, 함결같음, 웅숭깊음, 검소함, 인정미'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전라도닷컴'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인 황풍년 씨는 에세이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에서 남도의 매력을 담백하게 풀어낸다. 책은 지난 16년 간 토종잡지를 펴내며 만난 전라도 시골·산골 어르신들에 관한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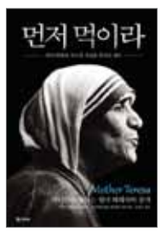
저자가 만난 이들은 "산, 들, 강, 바다, 갯벌, 풀, 꽃, 나무숲, 올망졸망 오일장, 굽이굽이 돌담길, 흥으로 정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라도가 탯자리요 삶터인 사람들"로 '촌스럽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책은 모두 '전라도의 힘', '전라도의 맛', '전라도의 맘', '전라도의 멋' 등 4부로 구성돼 있다.

〈행성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비와 사랑 실천했던 마더 테레사의 가르침



먼저 먹이라

브라이언 콜로제이축 엮음

무너진 세상을 걸어간 성녀, 마더 테레사. '먼저 먹이라'는 2016년 9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마더 테레사의 시성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더 테레사가 보여주었던 말과 행동을 집대성하여 엮은 책이다.

마더 테레사의 시복 및 시성 청원자이며, 1997년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함께 활동했던 최측근인 브라이언 콜로제이축 신부가 직접 엮었다.

'먼저 먹이라'는 "뱃속이 빈 사람은 하느님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고 말해왔던 마더 테레사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책은 마더 테레사가 몸소 실천했던 자비와 사랑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그녀는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먹이고 씻긴 다음에 그 영혼을 돌보았다.

자비의 14가지 육체적·영적 활동으로 나뉘어 있는 각 장에는 마더 테레사의 말과 글, 실천과 그에 대한 증언을 담았다. 〈학고재·1만7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